전주매일 CMYK

전북금연지원센터
금연성공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용동 344-2) 원광대학교병원 외래1관 1층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경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9년 6월 26일 수요일 (음 5월 24일) 제2318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25일 도청 접견실에서 송하진 도지사가 민선7기 1주년 기자 간담회를 갖고 있다

"천년 전북실현 대도약 향한 첫걸음"… 송하진 도지사 민선 7기 1년

향후 전북도정 비전 '춘화추실'

〈春花秋實〉

"올 초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통해 전북발전 전기 마련
목표는 '꽃 피고 열매 맺는 도정' 미래신산업 육성 주력"

민선 7기 1주년을 맞은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25일 "지난 1년은 천년 전북 실현의 대도약을 향한 힘찬 발걸음의 시작이었다면 앞으로는 정책 성공 실현을 위한 '춘화추실(春花秋實) 도정'에 온 힘을 모으겠다"고 비전을 밝혔다.

송하진 도지사는 25일 전북도청 접견실에서 민선 7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웅비의 전북시대를 만들어 갈 것을 강조했다.

먼저 송 지사는 지난 1년 도정 운영에 대해 "민선 6기 내발적 발전전략을 통한 틀잡기였다면 7기의 첫해인 지난 1년은 정책진화의 관점에서 정책들을 좀 더 가다듬고 구체화해 실천하는 시작의 해였다"고 되돌아봤다.

〈관련기사 16면〉

이어 "1년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고용위기지역 연장과 지엠 군산공장 부지의 인수, 상생형 일자리 모형 구축 등 다각적인 노력과 올 초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통해 전북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꽃 피고 열매 맺는 도정'을 향후 목표로 세운 송 지사는 이 같은 결론과 전북 발전을 위해 체질강화와 함께 산업생태계 구축 마련에 전력을 다한다는 포부를 강조했다.

송 지사는 "허약한 산업기반, 취약한 지역경제를 타개하기 위해 주력산업 고도화와 산업구조 다각화 및 미래신산업 육성 구축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내연기관차에서 전기, 수소전기 등 미래 친환경자율자동차 육성 ▲스마트농생명밸리 육성 ▲수요자 중심의 여행체험 1번지 실현 ▲R&D(연구개발) 확대화와 사업화 ▲새만금 재생에너지 성장 ▲탄소산업 전략범위를 융복합 미래산업으로 확대 ▲제3금융중심지 도약 등이다.

전북과 전북인의 자존의식 복원에도 계속된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계획도 진행형임을 밝혔다.

송하진 지사는 "전북 몫 찾기, 정체성 확립, 자존의식 제고 등 자랑스러운 전북의 역사를 재정립하고 위상을 되찾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전라천년을 통한 전북정신 확립과 문화재 복원, 동학농민운동 선양사업 추진, 베트남 등 국제협력 강화 등에 적극 나서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송 지사는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따른 대책에 대해 "정부와 기업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이어가고 있지만 또 다른 창구의 하나로 부지에 대한 다른 아이템으로의 접근도 신중히 고려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송하진 도지사는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도 차원의 신규사업 확장에 노력을 기울고 있다"며 "과감한 대규모 사업 발굴과 대기업 유치 등을 통해 전북 발전 속도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매일 INDEX
2면 - 장애등급제 31년만에 폐지

민선 7기 송하진 전북도정은?

민선 6기 정책 진화

삼락농정 · 탄소산업 등 축으로 일자리 창출
산업생태계 구축 가능 '대도약' 발판 마련

민선 7기 송하진 전북도정은 전북이 가진 강점을 살려 실질적 성장을 이뤄내는데 초점을 맞춰 온 민선 6기의 각종 정책을 진화시켜 전북의 대도약을 이뤄내겠다는데 방점이 찍혀 있다.

도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와 인구 감소 등 어려운 외부 여건 속에서도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확정과 상용차 혁신성장 사업을 비롯해 농생명소재식품, 지능형기계부품, 탄소·복합소재 등 지역특화산업이 국가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돼 전북 산업의 구조 고도화와 지속성장이 가능한 산업생태계 구축을 가능하게 하는 등 대도약을 위한 발판이 마련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도정의 제1과제인 삼락농정의 경우 농민의 삶과 농촌의 풍경을 활력있게 바꿔가기 위해 전국 최초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시행했을뿐만 아니라 민관협치의 바탕이 된 삼락농정위원회를 출범시켜 전북 농정의 대안을 제시하고 현안과제를 논의하는 등 화려한 농정의 꽃을 피우고 있다.

탄소산업이란 미래산업에 일찌감치 눈을 뜬 전북도는 전국 최초로 탄소산업 육성조례와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만들었는가 하면 탄소소재법 제정으로 국가주도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에 반영시키는 등 성장기반을 탄탄히 마련해 왔다.

도는 또 자동차 산업과 조선산업, 기계부품 등 도내 주력산업들의 획기적인 체질개선 토대를 마련해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산업의 육성을 본격화하고 지역진흥사업 추진을 통해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소위 미래형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는 등 GM 군산공장 중단 등이 불러 온 위기를 오히려 역으로 대반전을 이루는 기회로 삼기 위해 차근차근 도정의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전북도가 이처럼 삼락농정과, 탄소산업 등을 축으로 민선 6기를 끌어오게 된 것은 결국 더 좋은,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것.

지역에 특화된 일자리 시책으로 전북도는 정부주관의 일자리 정책 평가에서 4년 연속 수상하며 고용창출 동력을 확보해 오면서 민선 7기 들어서는 지역 일자리 체질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인 맞춤형 '두드림(DO-Dream) 전북형 일자리' 정책을 수립해 5대 전략, 15개 핵심과제가 가동되고 있다.

한국지엠(GM) 군산공장을 활용하기 위해 엠에스(MS)컨소시엄 유치를 통한 전기자동차 생산과 새만금에 전기 완성차·부품기업 집적화를 통한 전기차 클러스터 조성으로 전북 상생형 일자리 모델 안착에도 도정 역량이 집중되고 있다.

새만금사업은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되는 것은 물론 한해 1조원이 넘는 국가예산이 확보되면서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다.

전북 도민들의 50년 숙원이었던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확정돼 전북의 하늘길이 열리게 됐을뿐 아니라 고속도로, 항만, 철도 등 주요 사회간접자본시설(SOC)이 조기 구축을 향해 내달리고 있는데다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으로 공공주도 매립사업이 추진돼 새만금 개발은 구체화 되고 있다.

도는 이같은 굵직굵직한 현안 외에도 도민 인권 향상을 위한 과단위 인권전담부서인 인권담당관 설치 운영은 물론 국립 공공의료 대학원 설립 확정, 기초생계수급 탈락가정 생계를 지원하는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 운영, 전북권 보훈요양원 건립 등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 도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도 알뜰하게 챙기고 있는 상태이다. /김진성 기자